

성령의 열매 시리즈 소그룹 인도 교안

(6) 자비 - 자기연민을 뛰어넘어

- 사도신경: 다같이
- 기도: 말은이

“성령의 열매 (6) 자비 - 자기연민을 뛰어넘어”
-마태복음 25장 31-36절-

❖ 마음문 열기 (Welcome)

누군가에게 자비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 찬양하고 경배하기 (Worship)

빈들에 마른 풀같이(찬183)

❖ 말씀나눔 (Word)

1. 이번 주일 설교와 마태복음 25장 31-36절을 읽고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로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자비는 인내와 함께 사랑을 구체화하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외부의 억압을 견디는 차원이라면, 자비는 남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자비 중 어떤 것에 장점이 있는지, 모자란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3. 창세기 3장에 따르면, 우리는 영적 영역과 마음의 영역과 육체의 영역 모두 죄로 인해 망가지게 됩니다. 복음은 이처럼 망가진 모든 영역에 회복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화해하였지만, 자기자신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거나 혹은 이웃들과 화평하지 못하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자비는 영적 회복이 마음의 회복과 이웃과의 회복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교자는 자비의 반대말을 ‘자기-연민’이라고 말하고, 자비의 유사품을 ‘속임’ 혹은 ‘조작’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떤 차원인지 살펴봅시다.

4.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요, 작은 자를 무시한 것이 주님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자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을 섬기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비의 실천을 위해 우리가 결단할 것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 좋은소식 알리기 (Witness)

복음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함시다.

❖ 함께기도하기 (Work of Prayer)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함께 기도할 내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시다.

나아가 한주간 이 내용들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함시다.